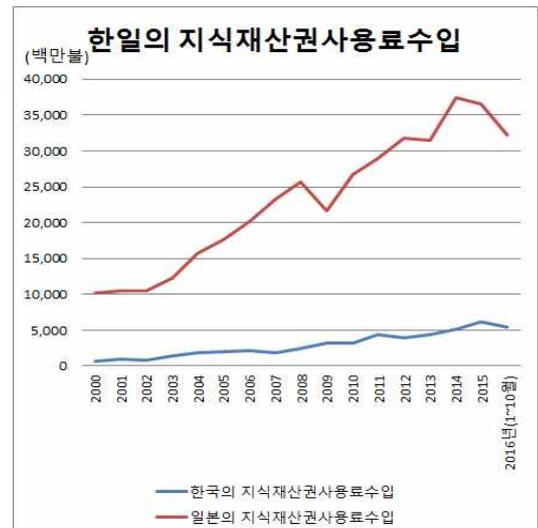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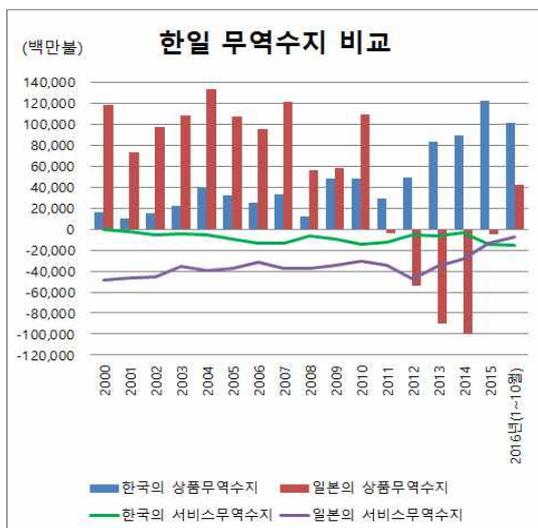


일본 무역의 새로운 힘 ‘지식재산권사용료수입’

- 일본은 상품무역수출이 부진해지는 한편 지식재산권사용료수입이 무역의 주인공급으로 부상하는 등 일본 무역이 구조 변화를 보이고 있음
- 지식재산권수입의 호조로 일본의 서비스무역 적자는 축소함에 따라 상품무역수출이 부진해도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

□ 확대하는 지식재산권사용료수입

- 물품 수출 중심으로 외화를 벌어들인 일본의 무역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음
 - 해외로부터의 배당이나 이자도 많지만 최근에는 일본기업이 보유하는 고도의 생산 노하우나 상표의 수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들이 서비스무역의 적자를 보완하고 있음
 - * 일본의 서비스무역수지: ('15) -139억 6000만 달러, ('16.1~10) -77억 8800만 달러
 - 특허료 등 지식재산권사용료수입에 의해 일본이 얻는 금액은 '15년에 366억 300만 달러, '16.1~10월도 322억 7600만 달러로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
 - * 일본의 경상수지: ('15) 1355억 8400만 달러, ('16.1~10) 1672억 8200만 달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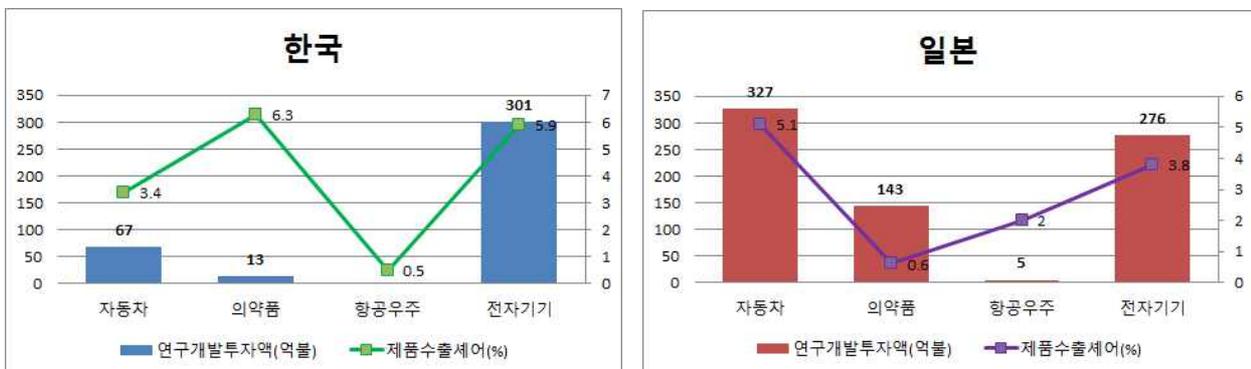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은행, JETRO

□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현황

- 총무성의 '15년도 과학기술연구조사에 따르면 기술무역에서 가장 수입이 큰 부문은 자동차 등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2조 3000억 엔
 - 해외 현지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일본 본사가 차량 설계도나 생산기술을 해외자회사에 대여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특허나 저작권 등 사용료가 발생
 - 북미로부터의 수입이 54.6%*로 가장 많아 도요타자동차나 혼다 등 현지 자회사로부터 지식재산권 수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
 - * 지역별 비율: 아시아 35.9%, 북미 54.6%, 유럽 5.8%, 기타 3.7%
- 다음으로 기술무역 수입이 높았던 산업은 의약품이며 지식재산권사용료수입은 4771억 엔
 - 일본의 의약품 대기업들은 해외 자회사가 출원한 특허를 현지 대기업에게 대여하는 경우가 많아 일본 본사로 들어오는 지식재산권사용료는 크지 않음
 - 한편 일본에서 취득한 특허를 해외에 직접 공여하는 중견 의약품 기업들의 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
- 일본은 상품무역수출의 주력인 자동차, 전자기기 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개발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정한 시장 세어를 갖고 있음
 - 그러나 의약품 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액이 높는데 비해 수출 세어가 낮은 반면 한국은 적은 투자로 높은 세어를 획득

< 2015년 한일의 산업별 R&D투자액과 제품수출세어 >



자료 : OECD, 일본자동차공업회

□ 시사점

- 일본의 지식재산권사용료수입 중 약 70%는 해외 그룹기업 내에서의 모회사-자회사 간 거래이므로 다른 시장을 개척할 필요
 - '16년은 원유가격 인하로 일본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상품무역수지가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상품무역수출을 '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세계시장을 타깃으로 한 독창적인 제품의 아이디어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
 - 특히 의약품이나 IT 서비스, 콘텐츠 비즈니스 등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지향적인 분야는 글로벌한 서비스 전개가 요구되지만, 한 기업이 모든 과정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사는 핵심적인 지식재산권 부분을 맡고 다른 부문은 오픈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모델이 전략적이라고 할 수 있음
- 한국은 상품무역수출의 흑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, 장래 상품무역수출 축소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서비스무역 적자의 개선을 도모해 나갈 필요
 - 무엇보다 한국은 지식재산권사용료의 수입보다 지분이 많아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적자폭 축소 대책 마련이 시급함
 - * 한국의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: ('00) -25억 9880만 달러, ('05) -26억 8440만 달러, ('10) -59억 9450만 달러, ('15) -38억 5700만 달러
 - 또한 한류 관련 분야 등 한국만의 강점을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사용료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과 제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입을 발생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등을 추진할 것이 중요 

<참고자료>

넷케이신문(2016.12.26)